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10 May 2017 (afternoon)

Mercredi 10 mai 2017 (après-midi)

Miércoles 10 de mayo de 2017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닿아지는 살들

5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맏딸이 또 밤 열두 시에 돌아온대서 벌써부터 기다리고들 있었다. 서성대는 사람은 없으나 언제나처럼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는 감돌고 있었다.

은행장으로 있다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명예역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지금도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한 달 살림은 넉넉했다) 일흔이 넘은 늙은 주인은 연한 남색 명주옷을 단정하게 입고 응접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입기는 입었으나 어쩐지 험렁험렁해 보이고 축 늘어진 앞음새는 속이 허하여 혼자 힘으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귀가 멀고 반 백치였다. 그러나 허연 살결의 넓적한 얼굴은 훨씬 젊어 보이고 서양 사람의 풍격을 느끼게 하였다. 며느리 정애(貞愛)와 막내딸 영희(英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한복 차림을 싫어하는 왕년의 시아버지의 뜻대로 정애는 봄 스웨터에 통이 좁은 까만 바지 차림이고, 영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누이는 사이 좋은 자매를 연상케 하였다. 세 사람은 모두 넓은 창문 너머 어두운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애는 시아버지의 한 팔을 부축하고 앉았고, 영희는 옆에서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았다.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뚜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단 쇠를 쇠망치로 뚜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의 쇠망치에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 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초록빛 벽 틈서리에서 어머니는 편안하시다. 돌아가서 편안하시다. 형편없이 되어 가는 집안 꼴을 감당하지 않아서 편안하시다.

팡 당 팡 당.

저 소리는 기어이 이 집을 주저앉게 하고야 말 것이다. 집지기 구렁이\*도 눈을 뜨고 슬금슬금 나타날 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향연이다. 마지막 향연이다.

유감없이 이별을 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유감없이 이별을 고해야 할 것이다. 영희가 갑자기 작위적인 구석이 느껴지게 필요 이상으로 깔깔대며 웃었다. 정애가 화답  
45 놀랐다.

“참, 언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우?” 하고는,  
“아버지 팔을 그렇게 부축하고 있으니까 며느리 같지가 않구 딸 같아요.” 하고 말했다.

정애는 약간 수줍어하는 듯한 표정을 하였다. 아버지는 물론 못 듣고 있었다.  
50 제 코 앞의 사마귀만 주무르고 있었다.

영희가 계속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조급해 있었다. 쇠붙이 뚜드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억지로 조잘대고 있는 셈이었다.

팡 당 팡 당.

그러나 그 쇠붙이 소리는 같은 30초가량의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뽕뽕뽕뽕한  
55 30초다. 영희 목소리의 밀층 넓은 터전으로 잠겨 그 소리는 더욱 운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두 이 정도로 민주적인 집안인 셈이겠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이쯤 되어 있으니.”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더 목소리를 높여,

“그렇지만 진력이 안 나우, 올켄?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빠진 게 있어. 큰  
60 나사못이래두 좋고, 받들어 주는 기둥이래두 좋고. 아이, 안 그렇수?”

정애는 시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시아버지와는 다른 성격으로 백치가 되어 있다. 대화란 피차 신경을 끊어 놓기 위해서, 밤낮 할 것이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잊어버렸던 일을 되풀이일으켜 피차 골치를 앓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사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듯이 보였다.

65 “오늘 저녁두 열두 시유?” 영희가 또 말했다. 계속해서,

“오빠 또 2층이겠수?” 하고는,

“참, 그인 아직 안 돌아왔쥬?”

그이란 선재(善哉)일 것이었다. 아직 약혼까지는 안 됐으나 결국은 그렇게 낙착되리라고 피차 생각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터였다. 이북으로  
70 시집을 가서 이젠는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언니의 시사촌 동생이라니, 그렇게 알밖에 없었다. 1·4 후퇴 때 월남을 하여 험한 세상 건너오면서 그 나름의 두터움이 배어들 만도 하였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늙은 어머니가 그를 몹시 아껴 주고 측은해하였다. 제 만딸의 시동생이라는 연줄을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이호철 <<사상계>> (1962)

\* 구렁이: 한 집안을 보호한다고 여겨진 구렁이. 이 구렁이가 나가면 그 집안의 운수도 다한다.

(ㄱ)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다림’이 각 인물과 인물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ㄴ) 이 글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찾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에 맞게 설명해 보십시오.

2.

복어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5 복어들,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10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15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20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대설주의보>> (1983)

(ㄱ) 이 시에서 ‘복어’의 이미지가 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설명해 보십시오.

(ㄴ) 이 시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